



#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 4

<b>주 제:</b>	“수난주일.”	“주님성지수난 주일” (다해)	<b>2007년 4월 1일</b>
<b>복음 묵상:</b>	루카 22,14-23,56	이사 50,4-7	필리 2,6-11

. 본당에서 수난 복음을 봉독할 때 신자들이 목청껏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구세주가 오신다고 열광하던 바로 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배신과 고발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외침은 당장 오늘날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남들은 잘도 살더니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침묵하고 제신 예수님을 나는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부탁 하나 들어주지 않는 힘없는 예수님은 하느님도 아니니 십자가형에나 처하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 신세 한탄이나 하느님을 원망하고만 있다면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군중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방식 즉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이때 우리의 참된 신앙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부산) **이장환 신부님 강론 중에서**

<b>일요 기도회</b>	<b>매주 일요일 11:30 레지오 방에서</b>	<b>2007년 3월 25(일요일)</b>
<b>진행: 박 소피아</b>	<b>음악:</b>	<b>참가 가족: 5명</b>
<b>복음 묵상: 요한 8,1-11</b>	<b>공동찬미: 시편 126 편</b>	

**나눔:**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지난 일주일의 생활 동안 이해하기 힘든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 시간이 이었다.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나에게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든다. 나도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인데 ..하는 뉘우침의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께 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점을 잡고 험집을 내기위한 것에만 몰두하여 한사람의 인격이나 배려가 전혀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의 악과 인간 차별의 율법학자들을 보며 교회 안의 우리 또한 작고 보잘것 없는 이들을 마음속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는 않는가. 작고 보잘것 없으며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이들을 함부로 다루며 예수님까지 함께 몰아부치던 이들이 다 떠난 후 끝까지 남아 그 죄인 옆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구체적으로 대화하며 제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겠다.

**가르침:** 성령 기도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중 성삼위의 현존 의식의 훈련 및 기도회 안에서 성가의 역할과 그 활용 안내.

✦ **복음** [루카 22,14-23,56 or 23,1-49]



<b>평화 기도회</b>		2007년3월29일(목요일)
진행: 박 미카엘	음악: 버나드, 세실리아, 바오로	참가 가족: 9 명
복음 묵상:	공동찬미: 시편 105:1-13 편	

**나눔:** 오늘 저녁미사 후 연도가 있어서 연도를 마친 후에 비교적 짧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공동나눔 대신 이 수산나 자매님께서 ‘회개’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 “회개” 이 수산나

- \*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 회개(회심)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지속적인 호소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다
- \* 회개는 외적인 행위의 변화가 아니고 내적인 사고와 생각만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참된 회개는 완전한 내적 마음의 변화가 한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켜 그 주변인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외적인 실천 행위로 드러날 때에만 가능하다.
- \* 고백(화해) 성사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가능케 해주신 하느님의 커다란 배려이시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회개는 죄스런 생활에서 탈피하여 주님께 ‘의탁’하는 행위이다. 주님께 철저히 의탁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회개가 될 수 없다.
- \* 복음적 의미의 회개는 주님과 일치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닮아가는 그리스도, 즉 주님과 완전한 일치를 지향한다. 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 \*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한 이들과 회개하지 못한 이들, 단 두 부류로 나눌 뿐이다.
- \*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 과정
  -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회개 과정이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었다고 고백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회개는 급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으며 그 기간 동안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기도드렸다.
  - 이는 회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회개하고자 하면 내 뜻을 굽히고 주님께 나아가 성령께 의탁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잡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하느님께 죄스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저우’ 회개의 출발점이다.
  -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가장 역겨워 했던 존재인 나환자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자신을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한다. 이는 회개가 (가장) ‘역겨워 하고 멀리해 왔던 대상’을 껴안는 과정에서 시작됨을 의미한다. 성인은 이것이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곧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자신이 역겨워 했던 대상을 껴안았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 회개의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역겨운 대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함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련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회개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 십자가의 여정임을 의미한다.

**평화 공지**

기도회 시작 전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미사는 단연 최고의 ‘준비 기도’입니다. 평화 기도회가 있는 목요일 저녁엔 미사에 꼭 참석하시어 기도회 전 주님 앞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당에서 새로운 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새로 단장한 웹에 성령 기도회 란에는 신자로 등록된 자는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어 좋은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http://67.15.255.6/~sjkorean/> 이곳에 먼저 등록을 하시어 나면 내용도 보고,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새 단장 중입니다. 함께 좋은 웹을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루카)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